

동아시아사 정답

1	②	2	④	3	③	4	①	5	①
6	①	7	④	8	②	9	④	10	①
11	④	12	④	13	①	14	②	15	⑤
16	⑤	17	③	18	⑤	19	③	20	③

해설

- [출제의도]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 이해하기**
(가)에 들어갈 유물은 황허강 유역 양사오 문화의 토기이다. ①은 라오허강 유역 홍산 문화의 토기, ③은 창장강 유역 허무두 문화의 토기, ④는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, ⑤는 일본 열도의 조몬 토기이다.
- [출제의도] 진 시황제 이해하기**
자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진 시황제이다.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 시황제는 화폐, 도량형, 문자를 통일하였으며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흉노를 견제하였다. ①은 몽골의 칭기즈 칸, ②는 청의 강희제, ③은 한의 무제, ⑤는 고조선의 위만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흉노 이해하기**
(가)는 흉노이다. 흉노는 최고 통치자인 선우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 등을 두어 통치하였다. ①은 거란(요), ②는 몽골(원), ④는 서하, ⑤는 수 등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이해하기**
자료는 동아시아 불교의 호국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.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군주와 지배층이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였다.
- [출제의도] 야마토 정권 이해하기**
(가)의 히미코 여왕이 친위왜왕의 칭호를 받은 것은 239년의 일이며, (나)의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은 것은 710년의 일이다. 다이카 개신이 단행된 것은 645년의 일이다. ②는 청대, ③은 헤이안 시대, ④는 에도 막부 시기, ⑤는 원대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상황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막부'는 일본의 에도 막부(1603~1868)이다. ①의 청해진은 통일 신라 시대 장보고가 설치한 것으로 당시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되었다.
- [출제의도] 은 유통 이해하기**
(가)는 은이다. ㄱ은 인삼, ㄴ은 동전 등이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몽골 제국 이해하기**
(가)는 몽골 제국이다. 몽골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정복하여 비단길을 장악하였다. ①은 한, ④는 발해 등, ⑤는 조선에 해당한다. ③의 백강 전투에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백제 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에게 승리하였다.
- [출제의도] 율령 체제 이해하기**
자료는 일본의 율령이다. 일본은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에 2관 8성을 설치하였다. 2관 중 태정관은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신기관은 제사를 담당하였다. ①, ⑤는 발해, ②는 당과 발해 등, ③은 통일 신라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청 왕조 시기 동아시아 문화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왕조'는 청이다. 사고전서는 청의

건륭제 때 완성되었다. ②는 당(唐)대, ③은 춘추·전국 시대에 해당한다. ④의 부모은중경은 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당(唐)대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. ⑤의 왕오천축국전은 통일 신라의 승려인 혜초가 저술하였다.

- [출제의도] 북위 이해하기**
(가)는 북위이다. 화북 일대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. ①의 아구다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금을 건국하였다. ②의 시박사는 해상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당(唐)대 이후 중국 여러 왕조에서 설치하였다. ③은 조선 세종 때의 일이 대표적이다. ⑤는 진(秦)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무로마치 막부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사건'은 오닌의 난(1467~1477)이다. 오닌의 난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쇼군의 후계자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. 오닌의 난 이후 각지의 다이묘 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센고쿠 시대가 전개되었다.
- [출제의도] 청대 동아시아 상황 이해하기**
(가)는 청이다.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수도 연경(베이징)에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파견하였다. 이 시기 조선에서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송상, 내상, 만상 등의 사상들이 활동하였다. ②는 당(唐)대, ③은 원대, ④는 16세기 중엽의 일이다. ⑤의 엔닌은 9세기에 활동하였다.
- [출제의도] 주희 이해하기**
(가)는 주희이다. 주희는 사서에 주석을 단 사서집주를 저술하였다. ①의 해체신서는 일본의 스기타 겐과쿠 등이 서양의 의학서를 번역한 것이다. ③은 고구려의 해자, ④는 조선의 강항, ⑤는 명의 왕수인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임진왜란·정유재란의 영향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전쟁'은 임진왜란·정유재란(1592~1598)이다. 전쟁 당시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이삼평 등의 도공들은 일본의 도자기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. ①은 베트남이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편찬되었다. ②의 장거정은 명 만력제 때의 내각 대학사로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다. ③은 조선 세종 때의 일이다. ④의 윤관은 고려의 관리로 여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별무반 설치를 주장하였다.
- [출제의도] 명·청 교체기 동아시아 상황 이해하기**
(가)의 사르후 전투는 1619년, (나)의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한 일은 1637년의 일이다. 병자호란(1636~1637)이 일어나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결국 청에 항복하였다. 모문룡은 명의 장수로 후금이 요동에 진출한 이후 평안도가도에 주둔하면서 조선에 지원을 요구하였고, 조선은 이를 수용하였다. 이를 빌미로 후금이 정묘호란(1627)을 일으켰다. ①의 정성공 세력 진압은 1683년, ②의 토목보의 변은 1449년, ③의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, ④의 명 멸망은 1644년의 일이다.
- [출제의도] 당 왕조 이해하기**
(가)는 당이다. 당은 화친 정책의 하나로 주변 국가에 화번공주를 파견하였는데, 토번에 보낸 문성 공주가 대표적이다. ①, ⑤는 몽골(원)에 대한 설명이다. 쿠빌라이는 몽골의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고쳤으며(1271) 남송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(1279). ②는 후금(청), ④는 에도 막부에 해당한다.
- [출제의도] 명 왕조 이해하기**
밑줄 친 '항해'를 추진한 왕조는 명이다. 명은

감함을 발행하여 무로마치 막부에 지급하고 무역을 허가하였다. ①은 일본, ②는 남송, ③은 고려에 해당한다. ④의 탈라스 전투(751)는 당이 이슬람 세력과 벌인 전투이다.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당의 기술자가 종이 제조 기술을 이슬람 세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- [출제의도] 과거제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제도'는 과거제이다. ㄱ은 독서삼품과, ㄴ은 산킨코타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.
- [출제의도] 거란(요) 이해하기**
밑줄 친 '이 나라'는 거란(요)이다. 거란(요)은 연운 16주를 두고 송(북송)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양의 물자(세폐)를 받는 조건으로 맹약을 체결하였다(1004). ①은 청, ②는 여진(금), ④는 몽골(원), ⑤는 고구려에 해당한다.